

News

'금산분리' 등 아날로그시대 금융규제 손본다

동아일보

금융위원회, 금융사들의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금융규제 혁신 과제 제시... 4대 분야, 9개 주요 과제 선정
은행,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넘게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하는 방안 중점 추진하기로... 전업주의 규제도 손볼 예정

0.1%P라도 더...인뱅 예적금도 '짹짹한 상품'에 몰린다

서울경제

케이뱅크, 수신 잔액 12조 1,800억원으로 집계... 전월비 7.5% 증가... 수신금리 인상으로 억머니무브 자금 흡수
대기자금 성격이 강한 파킹통장 고객 예치 경쟁 치열... 금리 인상으로 조달 여건 악화되며 예적금을 통한 자금 확보 필요성 높아져...

농협 손잡은 미술품 투자 '테사', 고객자산 보호 시스템 도입

머니투데이

NH농협은행, 미술품 투자 플랫폼 테사와 손잡고 고객 자산 분리 및 보관하는 시스템 도입... 조각투자 API 개발에 주력... 조각투자 기업의 고객 계좌 접근 최소화 목적
고객 예치금을 NH농협은행에 별도 예치하고 조각투자 기업의 도산 위험과 예치금 반환 채권을 절연해 자산 반환받을 보호 장치 마련... 22일부터 적용

우리·신한 '거액외환 이상거래'...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거래액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되었음을 확인하고 추가 파악 중
자금세탁방지법과 외환거래법상 절차적으로 문제 없는지 확인 중... 사실로 확인돼 제재 받으면 앞선 하나은행 사례보다 강력한 제재 받을 가능성

보험사, 퇴직연금 수익률 '저조'...마이뉴스 전환 속출

파이낸셜투데이

국내 생명·손해보험사들, 올해 2분기 직전 1년 수익률 기준 DC형과 IRP형 부문에서 대폭 악화된 수익률 기록...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DC형 수익률 -0.61%, -2.08%로 (-) 전환
손보사들 중에서는 DC형 기준 삼성화재와 KB손보가 각각 0.52%, 0.17% 기록... IRP도 손보사 DB손보와 롯데손보 제외하고 0%대 혹은 (-) 전환... 국내외 증시 악화 영향

'유사암, 5000만원까지 보장?'... 당국, 보험사에 "낮춰라" 권고

머니S

금융감독원, 일선 보험사에 유사암 보장상품 운용시 유의사항 관련 공무 발송... 최근 유사암의 보험가입 한도가 통상적인 한도수준 초과하는 사례 존재한다는 판단
올해 보장금액 높은 보험사들 외에 유사암 보장금액 확대하려는 증권 보험사들도 거론... 실제 치료비, 소득보전 수준에 맞춰 설정할 것 권고

증권사 9곳 487억 과징금 '무효'...증권위 "시장교란 아니다"

뉴스1

증권선물위원회,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고 과징금 부과대상 아니라고 심의·의결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최소가 불가피한 측면 존재... 호가 정정 취소율(95.68%~99.55%)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NH투자증권, 회사채 수요예측에 4천800억 몰려...연타석 홈런

연합인포맥스

NH투자증권, 19일 기준 2천억원의 회사채 발행하기 위해 수요예측에서 4,800억원 주문 받아내... 3년물 3,600억원, 5년물 1,200억원 자금 유입
공모 희망 금리는 3년물과 5년물 각각 최대 20bp, 30bp 가산한 수준으로 제시... 사측은 최대 3천억원까지 증액하는 방안 검토 중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